

‘대한민국 해양 영토 대장정’ 마친 전남대생 3인

“우리땅 백령도·마라도·독도 마음속에 담았어요”

박재홍·나현웅·이선희씨

“백령도와 독도, 마라도 그리고 망망대해. 우리 바닷길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옵니다. 외롭지만 곳곳에 우리 동해에 우뚝 서있는 독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요.”

2학기 시작한 캠퍼스는 여름인양 푸르렀다. 캠퍼스 곳곳에는 방학 동안 떨어져 지낸 학생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 등 활기가 넘쳤다. 지난 2일 국내 최초로 동해와 서해, 남해 등 우리 해양영토 순례를 다녀온 박재홍(26·해양환경학과 4년)·나현웅(25·전자컴퓨터공학 4년)·이선희(여·24·해양환경학과)씨를 전남대학교에서 만났다.

햇살이 내려앉아 반짝이는 바닷물처럼 학생들은 눈을 번쩍거리며 12박 13일 동안(8월 5~18일)의 우리 바다 순례 과정을 풀어내었다.

재홍씨 등 전남대생 3명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생 104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해양영토 대장정’ 대원들은 지난달 5일 평택항을 출발, 해군함정과 목포해양대, 한국해양대 실습선을 타고 백령도~목포~여수~제주~마라도~마산~울릉도~독도~부산을 이어지는 우리 바다 탐방길에 올랐다.

한반도를 둘러싼 3면의 바다와 그 끝을 지키고 있는 백령도, 마라도, 독도를 뱃길로 찾아 나



최근 12박 13일의 일정으로 해양영토 대장정을 마친 박재홍·이선희·나현웅씨(사진 왼쪽부터). /니평기자 jmjna@kwangju.co.kr

선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는 재홍씨를 비롯한 이들이 해양영토 대장정을 잇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탐방단은 울릉도에서의 하룻밤을 제외하고는 배에서 잠을 잤으며, 코스 이동 상 불가피하게 육로 이동을 해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선박만을 이동 수단으로 삼았다.

태풍 모라곶의 영향으로 애초 백령도에서 뱃길로 목포항으로 오려던 것을 버스로 이동했으

며, 1박 2일 동안 제주도에 머물러도 했지만 선박 정비 문제로 일정치 바뀌기도 하는 등 우려극절도 많았다.

해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선희씨는 “서해를 종단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TV와 교과서, 신문에서나 본 독도, 마라도, 백령도 등을 볼 수 있어 감격 그 자체였다”며 “특히 이번 순례길은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내가, 우리가 다녀왔다는 생각에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

첫 탐방지인 백령도에서는 해병대 극기훈련 체험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통일안보교육을 받았다. 목포에서는 남도문화를 체험했고, 여수에서는 2012년 열리는 여수엑스포준비위원장을 만나 준비과정을 듣기도 했다. 또 제주에서는 잠시나마 올레길을 걷고 마산 방문 때는 거제 조산소를 견학, 앞서는 우리 조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광복절인 15일에는 독도 땅을 밟고 광복절 기념행사를 벌였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에 맨발로 발자국을 찍는 퍼포먼스로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밟았다’는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ROTC인 현웅씨는 “지금도 출렁이는 바다에 있는 것처럼 온몸이 찌릿찌릿하다”면서도 “탐방기간 내내 수행해야 할 미션이 많아 무슨 훈련이라도 다녀온 기분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재홍씨는 “해양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우리 바다를 보면서 가능성을 느끼기도 했고, 외롭게 서있는 독도를 봤을 땐 지켜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며 “우리가 그동안 바다와 독도 등 해양영토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재)해양문화재단과 (사)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해양영토 대장정’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문화의 저변확대와 해양문화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젊은 학생들에게 해양 주권관식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결단식



9일부터 3일간 인천에서 열리는 2009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생활체육회선수단 400여명이 9일 오전 광주 천후계이트볼구장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금호고속, 신종 플루 예방 손소독제 비치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사장 김성산)은 최근 터미널 내 대표창구·회장실 등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포스터를 부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금호고속 제공>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임직원 자녀 장학금



대전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차주열)는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소속 회원사 임직원 자녀 등 36명에게 2천7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광주시회는 17번째 장학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646명에게 4억1천2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여수해경 생명사랑 실천 단체 헌혈



여수해경경찰서(서장 박성국)는 8일 전경 내무실과 경비행정 전용부동 등 2곳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사랑 실천을 위한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여수해경 제공>

대학 교수가 교황 베네딕토 16세 저서 번역 출간

정종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종휴 교수가 최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저서 ‘신앙, 진리, 관용’(가톨릭대 출판부)을 번역,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정 교수의 교황 저서 번역은 이번이 5권째로 20년 가까이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맺어온 친분이 큰 역할을 했다.

정 교수는 1991년 독일 뮌헨대학 법제사 연구소 객원 교수 당시 서점에서 우연히 베네딕토 교황(당시 라칭거 추기경)의 대담집을 접하고 이 저서를 번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승낙받았다. 이를 계기로 정 교수는 ‘이 땅의 소금’, ‘하느님과 세상’, ‘전례의 정신’ 등 교황의 저서를 잇달아 번역해 출간했다. 그는 “이번에 번역한 책에서 교황은 그리스도교 일치운동,



관용, 보편 구원 등과 관련한 혼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책이 가진 규모, 깊이 때문에 내용 정리와 요약이 쉽지 않았다”는 정 교수는 “이 책은 안락의자에서 볼 책이 아니라 책상에서 연필과 공책을 가지고 읽어야 할 책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독일 뮌헨대와 프랑크푸르트대, 미국 하버드 로스쿨,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규슈대학 등에서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전남대 법과대학장과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등을 지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영광 태청산서 국내 첫 자연주의 축제 열린다

국내최초의 자연주의 축제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광군 대마면 태청산 자락에서 열린다.

생명평화결사(운영위원장 황대권·사진)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단순 소박한 삶, 생명평화마을”이라는 주제 아래 일체의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에너지의 소비가 없는 자연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며 즐기는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참가자들은 각자 텐트와 침낭, 그리고 먹을 것을 가져와서 밥을 지어 먹으며 명상과 토론, 공동음악(함께 힘을 모아 노동하기)을 함께한다. 또, 서울 흥대목 인디밴드가 이끄는 자연음악



회도 열린다. 행사를 준비하는 생명평화결사는 6년 전인 지난 2003년 11월 지리산을 중심으로 생명평화를 가꾸고 실천하고자 결의 한 사람들의 연대로 현재 서약회원만 5천여 명에 이른다. 생명평화결사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대권씨는 ‘야생초 편지’의 저자로 이번 축제와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해, 태청산 자락의 5만여 평을 조건 없이 내 놓았다.

광주 그린장례식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광주 그린장례식장(회장 김영관)은 지난 7일 서울 63시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웃 돕기 유공자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그린장례식장은 6년간 매년 5천만원을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쓰기로 광주시와 협약하고 지난해부터 노인 돕기에 앞장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회장은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로도 지역민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친절서비스 평가 광주 동구 대상 수상

광주 동구(청장 유태평)는 9일 고객을 감동시키는 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친절문화교육협회가 전국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9 친절서비스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동구는 그동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직원 대상 친절 교육과 주민을 상대로 전화 친절도, 만족도 조사 등을 꾸준히 해왔다. 한국친절문화교육협회는 친절, 질서, 청결 교육을 위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사업을 펼치는 민간단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 ▲전병권(호남대 교수)씨 장남 준호군 정충길씨 사녀 선영양=12일(토) 오후 1시30분 삼무지구 예술의전당 3층(토파즈홀)
- ▲박성기·전복순씨 장남 선우군 김양호·미만순씨 장녀 수진양=12일(토) 오후 3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한강홀)
- ▲김태규씨 장남 진(화순 전남대병원)군 양화영(전 광주시의회 사무처 공보담당) 차녀 은미(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13일(일) 낮 12시20분 메리야트 웨딩홀 1층

동창·동문회

- ▲송원고 제11회 동창회(회장 황명성) 월례회=11일(금) 오후 7시 낙지현마당. 062-381-5559.

- ▲복성중 제13회 동창회(회장 허건호) 월례회=13일(일) 오후 6시30분 백운산 회관. 062-222-4569.
- ▲복성중 제12회 동창회(회장 서운호) 월례회=14일(월) 오후 6시30분 한우가(서광주 우체국 건너편) 062-373-2639.
- ▲조대부고 제15회 동창회(회장 장흥수) 월례회=15일(화) 오후 6시30분 임동원선아 ICC 3층 15회 동창회 사무실. 062-523-0015.
- ▲재광 전주상고 동문회(회장 서동철) 월례회=16일(수) 오후 7시 회사랑(오치동 한전앞) 010-4535-6688.
- ▲대동고 제14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19일(토) 오후 6시 신양파크호텔. 011-629-2730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제5회 전국 맨스 스포츠 경기대회=12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광주대학교 체육관(추최: 대한테니스경기연맹). 062-430-8046.
- ▲2009 자원봉사 정책토론회=긴급지원가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

- 최기후) 9월 정기월례회=11일(금) 금남로 5가 연합회 사무실 오후 6시 30분. 062-236-3220, 017-603-6436.
- ▲국부공회 광주·전남 총연합회(회장 공양진) 9월 월례회=14일(월) 오후 6시 문흥동 사랑방. 010-9112-9198.

모집

- ▲광주 시시 영어 전문학원 고용보급 수강 모집=FREE TIME 제도, 담임제 관리, 매달 모의 토익 시험 실시, 소수 정예, 주말반 가능. 062-223-0582.
- ▲광주·전남 생태귀농학교 학생모집=9월15일~11월5일(매주 화·

- 목 오후 7시~9시) 광주 가톨릭 대학교 평생교육원 농업·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Cafe.daum.net/landlovers). 062-373-6183.
- ▲전통주 과일주(와인) 제조법 수강생 모집=9월(수) 오전 10시~12시, 오후 7시~9시(매주 수요일) 호남대 평생교육원. 010-4568-0700.
-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부음

- ▲신점례씨 별세 이용섭·윤용·금지·경옥·정자·정에·은숙씨 모친상=발인 11일(금)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 ▲정영심씨 별세 홍일석·은정·안나씨 부친상=발인 11일(금) 나라장례식장 402호. 062-670-4444.

- ▲남길순씨 별세 김홍겸·창성·현수·진숙·정숙·원숙씨 모친상=발인 11일(금)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 ▲홍경운씨 별세 석원·홍선씨 부친상=발인 11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 ▲선병문씨 별세 재규(前문화부 교류협력과장)씨 부친상=발인 11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031-900-0444.
- ▲노병조씨 별세 문숙·태숙·지숙·부숙·영자·순자·정자·덕순·덕임·정숙씨 부친상=발인 10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 ▲정정봉씨 별세 응용·혜란·혜정

- 씨 부친상=발인 10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 ▲임복자씨 별세 추종호씨 모친상=발인 10일(목) 화동 금요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 ▲김용운씨 별세 희중·대영·부경씨 부친상=발인 10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최경순씨 별세 박성현·성진·성복씨 모친상=발인 10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 ▲이상재씨 별세 신오·종현·종국·경희씨 부친상=발인 10일(목) 학동 금요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선진국형 3대시스템 프리드 15년 연대중합상조

가업문화 1566-4499